# 社 說

## 정책적인 취업대책이 절실하다

### —취업대책기구의 확대계획을 보며

93학년도 전반기 졸업자 취업률이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캠퍼스의 취업률이 85.18%, 수원캠퍼스의 취업률이 71.9%로 나타나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대학원 진학이나 군입대 등을 제외한 순수취업률에 있어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약 2~3%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주를 이루는 가정대의 취업률은 53%선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순수 여학생들의 취업률은 48%를 나타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그 주요한 원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올 상반기의 취업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를 잘 뒷바침해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에 대응하는 대학당국의 자세다. 지난주 총장 서신을 각 기업체로 발송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의 고도화에 따른 신업인력의 고급화와 전문화 추세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있다. 회계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어시험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이 대학당국의 차원에서 좀더 정책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취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학생처 소속 취업정보실서 담당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캠퍼스 현 취업정보실의 체제는 취업정보실 주임 1명과 2명의 유급조교로 운영돼왔다.

취업전담부서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밖으로는 우수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안으로 미래의 경제구조를 전망해 낼 뿐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담업무까지 해내야 하는 부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 모 대학의 경우 취업담당부서에 13년을 연속 근무케 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정확한 기획력과 방대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하는 부서가 우리 대학에서는 업무량의 폭주와 함께 인력의 부족으로 '일에 채이는 형태'를 연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학당국과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2학기부터 기존의 취업정보실을 총장 직속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구의 소속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는 것이다. 물론 조직을 실장 1명과 과장 1명, 주임 1명, 실무직원 2명 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대학의 방침이 직원채용을 동결한 상태에서 인원의 확보가 가능할지가 의문시 된다. 아무쪼록 취업정보실의 확대 개편이 공염불이 아닌 더욱 내실화되고 체계적인 부서로 재탄생되길 바란다.

## 사제지간의 신뢰 회복할 때

###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 가치들이 간단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그중에 스승의 위상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시대에 스승다운 스승이 없고 사도(師道)는 실종된지 오래라고들 한탄한다. 더구나 개혁바람과 함께 터져나온 대학입시에 관련된 비리와 관계교수들의 추락된 위상은 실로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남은 한조각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가난과 유혹 그리고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는 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폭풍처럼 몰려오는 자본주의소비문화의 위력앞에 풍전등화처럼 깜박이는 사도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교육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나 사회도 그들을 보호적 차원에서 대해 왔는지 아니면 단편적 질타를 일삼아 왔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다양다변화한 탈공업사회에서 교사가 담당한 교육의 역할이 축소되어 왔음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교사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반면, 신문매체와 TV·책들의 엄청난 영향과 위력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입지를 간단없이 좁혀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교육목표의 근간은 인간교육과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 하겠다. 모든 진리나 학문도 인간교육에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단순한 지식의 전수나 기술의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학에서조차 윤리적 기준이 크게 논란되고 있는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교육은 너무 능률, 편의, 기능주의적 교육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교육풍토속에서 사도를 외치고 제자들의 예절을 부르짖어온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위험이 다분하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찾아도 많은 것을 잃어왔다. 소중한 가치인 사랑과 희생, 인고와 기다림, 신뢰와 의리같은 가치들이, 산업화의 홍수에 밀려 모두 떠내려 가고 남은 것은 앙상한 흑백논리와 불신만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포스트 모던시대의 탈이성 탈윤리, 탈중심주의는 이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사제지간의 올바른 관계의 복원은 결국 인간의 소중한 가치의 회복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중에 핵심적인 가치인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모든 교육과 투자가 사상누각처럼 부질없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들은 문제해결의 본원지를 지나치게 사회와 제도 구조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볼 일이다.

교수와 학생이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한발자욱 물러서 생각해 보라. 교수는 연구와 강의에 혼신의 정열을 바쳤는지, 희생을 각오하며 제자를 사랑하는 자세를 갖추었는지, 학생은 대화의 문을 트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존경과 신뢰감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혹 80년대의 격동을 겪으면서 서로들 탓하여만 오지 않았는지.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고, 사랑을 구축하며 신뢰의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 스승의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각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방송 매체 비평

## 양질의 오락프로그램 개발 시급

우리는 흔히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시간을 대부분 텔레비전과 더불어 보내게 된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때로는 흥분을 느끼고 가끔씩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더불어 행복과 슬픔을 공유한다. 우리에게 있어 텔레비전 시청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텔레비전 시청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오락의 매체와 비교할 때 텔레비전은 일반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저렴한 도구이다. 혹자는 일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에서 광고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지적하지만, 텔레비전 수상기를 장만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매월 지불하게 되는 시청료를 계산해 보아도 텔레비전은 일반 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오락매체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방송 편성에서 오락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미국, 일본의 상업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공영방송제도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영국에서도 교육과 정보 이외에 오락적 내용의 제공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드라마, 쇼, 코미디 같은 오락물이 꾸러기대행진'뭉 각 채널의 대표적인 오락물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프리타임대 오락물의 편중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텔레비전이 대중취향에 영합하는 오락물에만 치중한다면 대중문화 수준의 전반적 하락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무관심을 조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참여를 외면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할 수 있다. 또 오락 프로그램은 채널간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으로 변질되기 쉬우며, 저속한 유행을 선도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높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오락 프로그램의 전대적인 양을 줄이고 동시에 프라임타임대의 오락물 편중을 지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과제는 어찌한 내용의 오락을 시청자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조차도 경쟁력의 강화를 소리높여 외치는 요즘 알맹이 있는 '좋은' 오락프로그램의 개발은 우리 방송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송 현 경

(방송위원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 서민고통 딛고 서는 권력의 행복

### 사론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바라보며

요즈음 벚닢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당혹감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잇달은 개혁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 때문이다. 소위 정치학도로서 어느 정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네들의 기대어린 시선에 감자기 말문을 잃을 경우가 많다. 질문하는 상대가 이미 내리고 있는 결론 이상으로 신통한 대답을 해줄 수 없음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는 태어난지 1백일도 안됐지만 꽤 오래된 느낌을 갖게 만든다. 비유하자면 질음마도 하기 전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나 할까. 짧은 시간에 비해 볼 때 실로 많은 변화가 청와대(이 표현을 달리 쓰지 못하는 무지가 유감이다)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김영삼씨는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소망했던 대통령의 집에 들자마자 앞마당을 훤히 열어젖히고 뒷동산을 에워싼 철조망을 걷어내 다정한 이웃사람으로 국민들 곁에 다가왔다. 최초의 개혁은 빗장을 여는데서부터 준비되었는지 모른다.

청와대식단이 공개되었다. 식사를 함께 하는 정부각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겠다는 표현은 애교로 봐주더라도, 매끼니당 5천원에 해당되는 식사비는 보통 서민들로서는 지나친 지출임에 틀림없다. 다만 예전 시절에는 그 열배가 넘는 식사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후보도에 놀라면서, 국민과 더불어 살겠다는 새 정부의 노력을 가상히 여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은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지난 노태우정부의 초기에도 대통령이 자신을 낮추는 우리말인 '저'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자신의 가방을 직접 들지 않았던가?

곧게 닫혀져 있던 청와대의 개방과 더불어, 수십년 동안 묵은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건국 이래, 아니 어쩌면 단군님의 개국신화 이래 처음으로 이 '조용한'나라의 위정자들이 소위 '공개정국'하에서 '아랫 것들'한테 때아닌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할만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장구한 역사를 거쳐온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사슬이, 수천년 동안 유지해오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엄격한 신분제사회를 벗어난지 겨우 수십년인 우리 사회에도 '돈의 질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비극(?)이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소리 높여 외치는 이 나라에서 유일신(神)은 다름아닌 '돈(錢)귀신'이었음이 백주에 드러났다. 오호, 통제라!

연일 계속되는 신문방송의 보도는 한편으로 과거의 비리폭로, 다른 한편으로 '신한국'의 청사진을 밝히기에 바쁘다. 시청자와 독자는 시종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옹기종기 모여 분통을 터뜨리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때론 안타까운 한숨으로 날을 지샌다.

튼제는 지금부터다. 누가 개혁하는가? 해묵은 논쟁을 여기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개혁의 주체를 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이다. 이 짧은 글에서 그것을 다룰 여유는 없다. 따라서 개혁의 목표와 대상을 중심으로 개혁의 주체에 대한 논란을 대신하고자 한다. 단편적인 관찰이겠지만, 필자가 김영삼정부의 개혁을 바라보고 느낀 것이 섹다른 주장은 아니다. 다만 개혁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정도일 뿐이다.

변화는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서 일어났다.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회의 지도층임을 자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소수의 저명인사들은 가히 점작하기조차 힘든 변화를 겪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인양 우리사회에 알려진 모든 보도매체가 치열한 경쟁에 나섰던 덕분이기도 하다. 소위 구질서(ancien regime)의 해체작업에 너나없이 총력전을 벌인 격과, 그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수없는 스타들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쓰러져갔다.

우리 사회의 지배층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세대에 영화를 누려온 대가로, 철저히 고통을 분담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손대대로 물려줄 세습재산이 건재하다. 저주스러운 '정의의 화신'인 김영삼정부가 삐걱거리거나 퇴진하는 날, '돈귀신'은 다시 더 큰 힘과 세련된 방식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과 더불어 그들은 강요당한 변화를 능가하기 의하여 스스로 변할 것이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당혹스럽게 느끼는 문제로서, 김영삼정부의 충원과정 및 보궐선거에서 과거 소위 '재야운동권' 출신들이 김영삼정부에 참여한 일은 많은 찬탄과 비판을 자아냈다. 그네들의 이야기로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통성 있는'새정부에 참여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한 찬반논쟁에 가담할 생각은 없다. 다만 궁금한 것은 그들이 본래 참여하고 싶었던 장(場)은 고통을 나누는 서민의 삶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권력의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소신있는 참여자의 말대로 '권력의 핵심'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전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제1조는 물변의 진리이다.

고통을 분담받은 서민들이 삶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을 누렸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이 작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 변한 것보다 변하지 않는것을 체감하는 서민들이 여전히 대다수이다. 서민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문민정부란 표현이 도대체 언제 생긴 말이냐? 혹시 일본제국주의 시절 삼일운동이후 문화통치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아니냐? 삼일운동 이전 조선민족지도자들이 변절한 기록은 별로 없다. 그러나 삼일운동 이후 숱한 민족지도자들이 변절하면서 일제에 협력하는 참여의 변과 최근의 재야인사의 참여의 변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 서민의 생활은 전혀 달라진게 없는데, 날이면 날마다 신한국을 드높이 부르짖고 있는 김영삼정부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부냐?

얼마전 술자리에서 무엇에 사무친듯 느닷없이 질문을 퍼부어대는 어떤 후배의 아릇한 표정에 나는 할 말을 잃고, 솔직히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내가 답변할 문제인지 아닌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더 이상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박 호 성

(본교강사·민족통일론)

## 신한국 청사진·비리폭로에 당혹감
## 권력중심개혁에 서민삶 변함없어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심신수련)

심신수련은 부족한 활기를 보충하고 이성 온몸에 순환시켜 심신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선경나름의 독특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선경인들은 이능 통해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할뿐만 아니라 회사업무를 즐겁게 수행하고 나아가 일처리 능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한 호흡 한 호흡 —"

선경건설 심신수련회 회원들이 수련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는 모습

선경인들의 독특한 건강관리법—심신수련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몸도 약해지고 의욕도 떨어질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운동도 시도해 보지만 시간이나 장소, 비용등의 문제로 꾸준히 지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어 회사내 모임들도 차츰 늘어가고 이제는 선경 기업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단전에 기를 모으고 한 호흡 한 호흡—선경인의 자세인 패기를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시작된 심신수련은 단전호흡의 원리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체조, 호흡, 명상 등을 통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심신을 다지는 건강관리법입니다. 신입사원 연수의 바쁜 일정에도 6시간이나 들어있어 못나기 사원들을 의아하게도 했던 심신수련. 하지만 선경인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요즈음 (주)SKC기획부 친태문 부장이 사원들과 밤늦도록 회의를 해도 거든히 출근하게 된 것이나 일년이면 서너번씩 병원을 찾던 선경건설 경리부 백영미씨가 활기를 되찾은 것도 알고보면 꾸준한 심신수련의 덕분입니다.
심신수련에 열중해 있는 사원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개개인의 건강까지도 하나하나 생각해주는 회사에 대한 두터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SUNKYONG
鮮京그룹